

2월이 가기 전에 11학년이 해야 할 일

이제 11학년 차례이다. 2020학년도에 입학할 하는 12학년들은 한달 뒤면 레귤러 지원 합격통지를 각 대학들로부터 받는다.

11학년들은 이제 대학을 선정하고 원서를 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가 목표 대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대학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위권 사립 대학들은 오는 11월 1일에 얼리 원서 마감을 한다. 사립대학 가운데 주로 학부중심대학들은 11월 15일에 얼리 원서를 마감한다.

11학년들 가운데 SAT 시험 점수를 기대치로 확보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기대치보다 낮은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제 남은 시험은 3.5.6.8.10.11.12월이다. 3월 SAT시험 준비가 안 됐다면 5월 또는 그 이후로 넘겨야 한다. SAT 서브젝트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시험을 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가 11학년 학생들이 2월에 해야 할 일들을 제시했다.

1) 3월에 실시되는 SAT1 시험을 잘 준비해야 한다. 아직 SAT 시험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다. SAT 시험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시험을 노려야 한다. 10월 시험을 마지막으로 놓고 준비를 해야 한다.

2) 가능한 지원 대학 리스트를 빨리 정하는 것이 좋다. 학생의 능력과 부모의 경제력, 전공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대학 지원 리스트를 정해야 한다. 더불어 공립-

사립, 학교 크기, 지역, 학교 명성, 전공, 학비 등도 고려하자. 목표 대학 선정은 매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20여개 대학을 정하고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카운슬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3) 대학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성적이다. 11학년 2학기 성적을 잘 유지해야 한다. 11학년 성적은 특히 중요하다. 결코 하향 곡선을 그려서는 안 된다.

4) 오는 5월에 실시하는 AP시험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AP준비를 하면서 내신 성적 등 다른 요소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특별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6) 2월 초에 공통원서 에세이 주제가 정해졌다. 지난해와 주제가 같다. 꼼꼼히 읽어보며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자.

다음은 에세이 주제이다.

1. Some students have a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 that is so meaningful they believe their application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If this sounds like you, then please share your story.

2. The lessons we take from obstacles we encounter can be fundamental to later success. Recount a time when you faced a challenge, setback, or failure. How did it affect you,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 experience?

3. Reflect on a time when you questioned or challenged a belief or idea. What prompted your thinking? What was the outcome?

4. Describe a problem you've solved or a problem you'd like to solve. It can be an intellectual challenge, a research query, an ethical dilemma - anything that is of personal importance, no matter the scale. Explain its significance to you and what steps you took or could be taken to identify a solution.

5. Discuss an accomplishment, event, or realization that sparked a period of personal growth and a new understanding of yourself or others.

6. Describe a topic, idea, or concept you find so engaging that it makes you lose all track of time. Why does it captivate you? What or who do you turn to when you want to learn more?

7. Share an essay on any topic of your choice. It can be one you've already written, one that responds to a different prompt, or one of your own design.

상위권 대학 당락의 열쇠 '에세이'

대학들은 지원자에 대해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한다.

1.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잘 따라오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를 할 것인가?

2.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요소는 다시 두 파트로 나뉜다.

1)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 잘 따라올 것

인가?" 는 학교 성적표를 보면 된다. 즉 난이도가 높은 과목, AP나 IB 과목들을 잘 이수했는가를 보면 된다. 여기에 물론 SAT, ACT도 포함되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다.

2)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는 학생의 액티비티와 그 내용을 녹여서 "나는 누구인가" 를 알리는 에세이와 추천서에 달렸다.

추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

히 지원 학생들이 모두 우수해 학교 성적이나 SAT, ACT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위권 대학 지원 학생들에게 있어 에세이와 추천서를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좋은 에세이는 에세이의 주제를 잘 파악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에세이다.

좋은 에세이의 공통점은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에세이 주제를 선택하여 ● 자신의 이야기를 명료하게 풀어나가고 ● 잘 어울리는 에피소드로 읽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고 ●문장 간의 논리적 전개가 명확해야 하고 ●결론이 감동적이어야 한다.

나쁜 에세이는 모호한 표현, 중언부언, 단순한 정보 나열, 자기 자랑, 하소연, 절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이 담겨 있는 에세이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